

은행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경영 성과에 미치는 영향 :가시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

제1저자 김도의(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학과 박사과정)
공동저자 민용기(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학과 박사과정)

I. 서론

II. 이론적 배경

III. 연구모형 및 가설

IV. 연구방법

V. 연구결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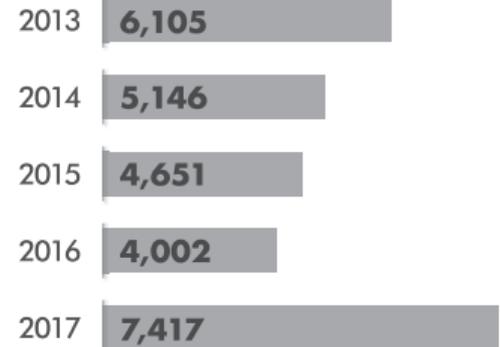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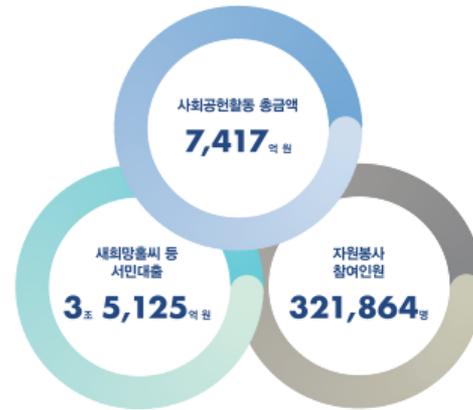
VI. 결론 및 논의

VII. 시사점 및 한계점

- 기업의 CSR 활동이 재무성과 또는 시장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은 여러 경영학자들 사이에 큰 관심이었음
(박지현 · 김양민, 2014; 반혜정, 2013; Brammer and Millington, 2008; Chang et al., 2012; Choi and Wang, 2009; Margolis and Walsh, 2003; Orlitzky, Schmidt, and Rynes, 2003; Waddock and Graves, 1997; Wang and Qian, 2011)
- 아직 완전히 합일된 결과를 도출하지는 못했지만, CSR 활동이 기업의 재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은 보편적으로 동의를 받고 있음
- 그러나 이러한 그러한 연구들은 대개 금융권을 포함하지 않고 진행됨
- 본 연구는 재무제표 작성 시 적용되는 회계기준이 다른 이유로 배제되는 금융권을 대상으로 진행하여 일반화에 기여하고자 함
- 추가적으로 상황적 요인을 확인하는 조절효과 중 가시성을 알아봄으로써 CSR 연구의 흐름을 확장하고자 함



숫자로 보는 사회공헌



2017년 분야별 사회공헌활동 금액

(단위: 억 원)

구분	금액
지역사회·공익	2,373
서민금융(마이크로크레딧)	3,135
학술·교육	807
메세나·체육	1,012
환경	28
글로벌	62
합계	7,417

사회공헌활동 금액 변동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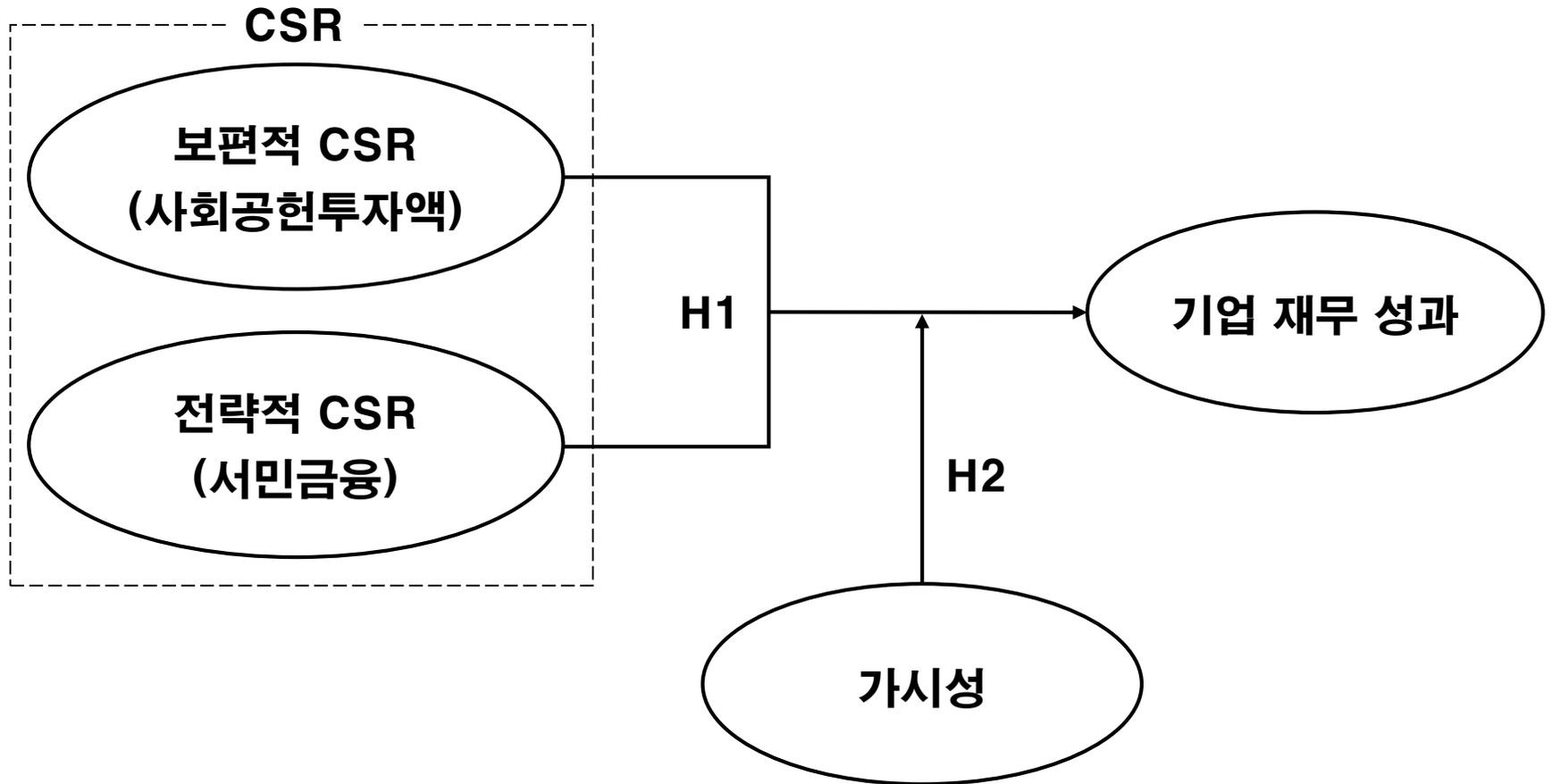
(단위: 억 원)

구분	2013	2014	2015	2016	2017
사회공헌활동 금액 (금융저축 실적 포함)	6,105	-	-	-	-
사회공헌활동 금액 (금융저축 실적 제외)	5,630	5,146	4,651	4,002	7,417

-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 하에서 미국의 금융기관들은 극단적으로 영리성을 추구하는 경영행태를 보이며 세계금융위기를 초래하는 결정적 역할을 함
- 금융기관의 공공성에 대한 인식이 약화된 것이 문제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됨 (원동욱, 2013)
- 또한 2008년 세계금융위기 과정을 겪으면서 금융기관의 신뢰 문제와 사회적 책임이 다시 크게 부각되기 시작함
- 금융기관은 일반기업과 달리 정부의 보호가 있는 독과점적인 규제산업으로 일반 산업에 비해 공공재 성격이 강함(박종각, 2014)
- 금융기관은 고객이 예치한 자금을 보관하면서 미래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형식이므로 일반 기업 보다 고객으로부터의 공신력을 확립하고 정당성을 획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
- 금융위기 해결과정에서 심화된 소득불균형 등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악화된 반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높아졌으나(변혜원과 조영현, 2013) 금융기관 특히 국내 일반은행을 대상으로 한 CSR 연구는 매우 부족함(김성욱, 2014; 김성욱과 하규수, 2015; 송동엽과 정성창, 2018)

- CSR 관련 연구들은 크게 CSR의 동기요인, CSR과 회계투명성과의 관계, CSR의 성과측정 및 공시문제(김선화와 이계원, 2013), CSR의 유형 분석 등이 있었음
- 그러나 지금까지 가장 주목을 받은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(CSR)과 기업의 재무성과와의 관계라고 볼 수 있음(Aguinis and Glavas, 2012; 천미림과 유재미, 2013)
- 대부분의 선행 연구에서 CSR 활동이 재무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짐(Landon & Smith, 1997; Waddock & Graves, 1997; Verschoor, 1998; Harrison & Freeman, 1999; Luo & Bhattacharya, 2006; Wang & Qian, 2011)
- 그러나 부정적 영향을 보여준 결과도 있고(Friedman 1970; Davis & Blomstrom, 1975; Pava & Krausz, 1996; Seifert et al. 2004; Brammer et al, 2006), 유의한 결과를 발견하지 못하였거나(Teoh et al, 1999), 중립적 관계를 보여준 연구들(Berman et al, 1999; McWilliams & Siegel, 2001)도 있음
- 그러나 지속적인 후속연구 및 경험적 증거를 통해 CSR과 재무성과 간의 긍정적인 관계는 어느 정도 연구자들의 동의를 얻게 됨(Orlitzky et al., 2003; Pelozo, 2009; Aguinis & Glavas, 2012)

III. 연구모형 및 가설



- 전략적 CSR활동은 기업에게도 이익을 주고 사회에도 좋은 영향을 주는 CSR 활동 (Carroll, 2001; Burke and Logsdon, 1996; Lantos, 2001; Porter and Kramer, 2006)
- 전략적 CSR 또는 전략적 공헌 (Carroll, 2001)은 ‘좋은 행위는 사회에도 경영활동에도 도움을 준다는 믿음’ 이 경영활동의 전략적 목표가 되는 것으로, 기업은 이에 상응하는 재무적 이익을 얻으며 (Quester and Thompson, 2001), 전략적 CSR을 수행하는데 발생하는 지출은 투자로 인식됨 (Goodpaster, 1996)
- 전략적 경영활동은 경쟁우위를 창출하는 것이고, 가치 (Value)는 기존 기업의 자원에 새로운 자원이 결합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가치창출은 혁신을 필요로 함 – CSR이 이러한 혁신 창출에 기회를 제공해줄 수 있음 (sharma and Vredenburg, 1998)
- 즉, CSR과 경쟁우위가 연계되면 CSR은 비용의 개념이 아닌 기회, 혁신, 경쟁우위의 원천이 되고, 기업의 성과와 사회 복지는 zero-sum 게임이 아니며 이러한 선택은 모두에게 이익이 됨 (Porter and Kramer, 2006)
-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통적인 CSR에 가까운 보편적 CSR 활동보다, 전략적 선택을 통해 명확한 타겟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CSR인 서민금융이 기업의 성과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을 기대할 수 있음
- H1: 은행의 경우, 보편적 CSR보다 전략적 CSR이 기업성과에 더 많은 정(+)의 영향을 줄 것이다.

- 기업의 가시성 (visibility)은 기업의 이해당사자들이 기업의 활동을 관찰할 수 있는 범위로서 (Husted & Allen, 2007) 기업의 행동에 대한 이해 관계자의 대응을 위한 전제 조건임
- 긍정적 이미지를 외부에 알려야 할 필요성이 많은 기업일수록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추구할 가능성이 높고 (박지현과 김양민, 2014),
-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대해 가시성을 높일수록 기업의 내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더 노출이 용이하게 될 것이며 (Servas & Tamayo, 2013),
- 이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인지도를 높이고 그로 인해 수행한 사회공헌활동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임 (Adams & Hardwick, 1998)
- H2a: 보편적 CSR과 기업성과 두 변수의 정(+)의 관계는 가시성에 의해 강화될 것이다.
- H2b: 전략적 CSR과 기업성과 두 변수의 정(+)의 관계는 가시성에 의해 강화될 것이다.

- 표본은 은행법상 지정되어 있는 일반은행 내의 시중은행, 지방은행을 대상으로 함
- 전국은행연합회 (<https://www.kfb.or.kr/main/main.php>)에 정리되어 있는 [은행사회공헌활동보고서]를 통해 보고되는 사회공헌 및 사회책임금융을 활용
- 금융통계정보시스템 (<http://fisis.fss.or.kr/fss/fsiview/indexw.html>)을 통하여 각 금융사의 재무자료를 획득 후, 매칭함
-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총 14개 은행, 83개의 관측치(기업-연도)로 표본을 구성함
- STATA로 임의효과모형 패널분석을 수행함
- 독립변수: 보편적 CSR(사회공헌 총 투자금액), 전략적 CSR(서민금융)
- 종속변수: t+1년도의 ROA (=당기순이익/총자산)*100
- 조절변수: 가시성 = 기업규모 (=ln(총자산))
- 통제변수: 기업연령, 부채비율, 자기자본비율, 고정이하여신비율, GDP 성장률, 광고집중도, 업종구분(1:시중은행, 2:지방은행), 연도더미

V. 연구결과

	평균	표준편차	1.	2.	3.	4.	5.	6.	7.	8.
1. 연령	62.361	29.059	1							
2. 부채비율	.924	.009	-.020	1						
3. 자기자본비율	7.654	.966	-.026	-.937***	1					
4. 고정이하 여신비율	1.263	.477	.047	.052	-.049	1				
5. 광고집중도	.003	.001	-.444***	.081	-.046	-.131	1			
6. GDP성장률	.052	.020	-.077	.322**	-.321**	.141	-.144	1		
7. 보편적 CSR	10.247	.486	.483***	-.077	.086	-.006	-.161	.029	1	
8. 전략적 CSR	10.889	.630	.463***	-.031	.031	-.086	-.163	-.170	.841***	1
9. 기업규모	13.651	.566	.650***	-.122	.167	-.031	-.375***	.001	.881***	.786*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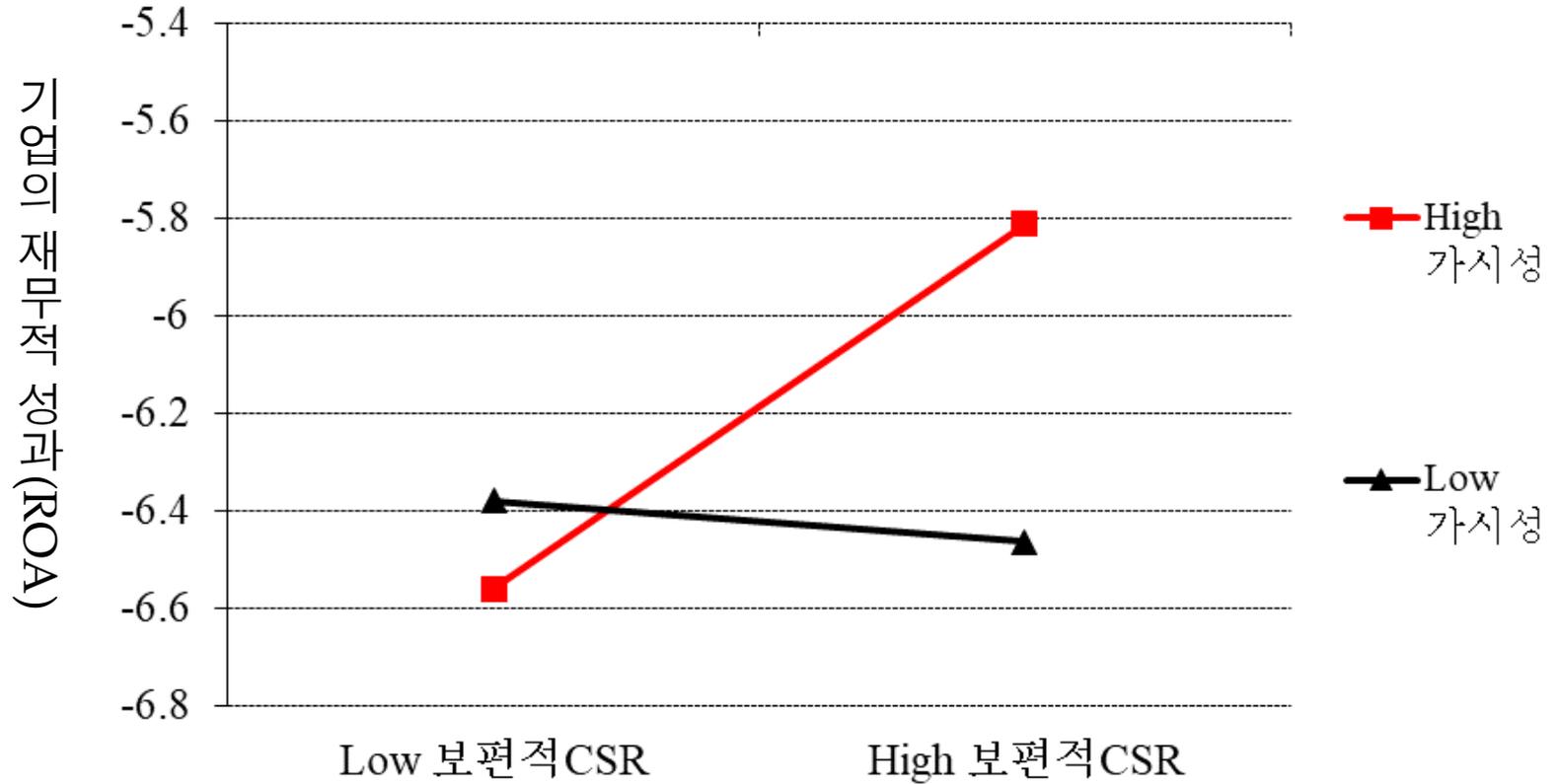
* p < 0.05, ** p < 0.01, *** p < 0.001

V. 연구결과

ROA	모형1	모형2	모형3	모형4	모형5
상수	.0862	-4.6177	18.2583	1.0501	29.9441
연령	.0011	.0007	-.0002	.0003	-.0006
부채비율	-.0742	3.6521	7.3900	1.5101	1.8645
자기자본비율	.0679	.1168	.1621	.1039	.0989
고정이하여신비율	-.0321	-.0363	-.0698	-.0433	-.0898
광고집중도	33.3679	30.6816	9.4090	34.7859	27.4434
GDP 성장률	-1.9389	-23.6027	-21.7994	-3.4513	-30.0013
연도더미			포함		
업종더미			포함		
보편적 CSR		.3503***	-2.6089*		-7.6462**
전략적 CSR		-.1353†		-.6441	4.0266*
기업규모			-1.9456*	-.1411	-2.2703**
보편적 CSRx규모			.2058*		.5799***
전략적 CSRx규모				.0433	-.3082*
Adj-R	0.5511	0.6401		0.6240	0.6953
N		83		83	83

† p < 0.1, * p < 0.05, ** p < 0.01, *** p < 0.001

V. 연구결과



- 보편적 CSR은 기업성과에 크게 유의한 정의 영향($\beta=0.350$, $p<0.001$)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, 전략적 CSR은 기업성과에 매우 약한 부의 영향($\beta=0.135$, $p<0.1$)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
- 보편적 CSR과 기업성과 두 변수의 정(+)의 관계는 가시성에 의해 강화됨
-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이유는 선천적인 금융 산업 자체의 한계로 인함
- 먼저, 이해관계자들이 금융업의 선행에 대하여 불신을 한다는 산업 자체의 한계로 인해, 특정 타겟을 대상으로 하는 전략적인 CSR활동보다 특정 대상이 없는 보편적 CSR활동이 이해관계자들의 반감을 상쇄시킴
- 그리고, 서민금융은 수익이 적은 영세 자영업자 및 소득이 낮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이기 때문에 위험하며, 비용에 상응하는 수익률을 서민금융시장에서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음(홍완엽, 2018)
- 즉, 서민금융 자체가 높은 상환율을 기대하지 못하는 사업인 만큼, 재무적 성과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힘들며 오히려 직접적이며 부정적인 관계가 있음
- 또한 서민금융은 기본적으로 갚아야 하는 돈을 빌리는 것이며, 서류를 준비하고 심사에 통과되어야 하기 때문에 서민금융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들은 이를 서민을 향한 지원, 또는 은행의 사회적 책임활동으로 느끼지 못할 수 있음
- 마지막으로, 서민금융활동이 정말 전략적으로 잘 계획되고 수행되는 CSR활동인지, 그저 단순히 정부의 제도를 따르는 반응적 CSR은 아닌지 은행은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음

- 기존의 여러 CSR 연구에서 금융업의 재무제표 작성법이 다르다는 이유로 배제된 은행기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보편적인 CSR연구의 일반화에 기여함
- 전국은행연합회에서 발간하는 [은행사회공헌활동보고서]에 보고되는 사회공헌 활동 관련 자료를 CSR 측정값으로 사용함으로써 기존에 한정된 CSR측정값에서 방법론적 다양성을 넓힘
- 마지막으로, 실제 은행에서 시행하는 CSR활동 중 보편적 CSR활동이 보다 더 재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학문의 영역과 실무 영역 모두에 기여함

- 본 연구의 샘플 수가 많지 않아, 보다 오랜 기간동안 해당 데이터를 충분히 모아 분석을 수행한다면 더 탄탄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임
- 본 연구에서 사용한 사회공헌투자액의 세부항목을 나누어 분석하였다면 보다 명확하게 어떠한 사회공헌 활동이 CSR에 영향을 주었는지 확인할 수 있음

THANK YOU

2019년도 한국서비스경영학회 하계학술발표대회